

2020 **꿈** 을 쓰다 <7> 연극배우 이영환

“선한 기운 전하는 행복한 배우 되고 싶어요”

“연극은 배우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관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최근 6·25전쟁의 아픔과 치유를 담은 연극 ‘칠산리’에 출연한 연극배우 이영환(36)씨. 현재 극단 사람들 사이 단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드라마를 통해 데뷔해 영화,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연기에 첫발을 들인 것은 친구 따라 간 연극동아리에서였다. 고등학교때까지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그는 조선대 환경공학과에 입학해 친구의 권유로 연극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제가 친구따라 강남 간 경우예요. 연기에 특별한 뜻이 친구 때문에 시작한 동아리 활동인데 막상 하다보니까 동아리 사람들과 정도 쌓이고 연기가 재밌게 느껴졌어요.”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대학교 졸업 무렵, 전공에 관심이 없던 그는 무역학과 복수전공을 했고 공무원 준비도 해봤지만 결국 생각나는 건 연기였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거셌다. 배우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가난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씨가 장남이기 때문에 더 나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 그랬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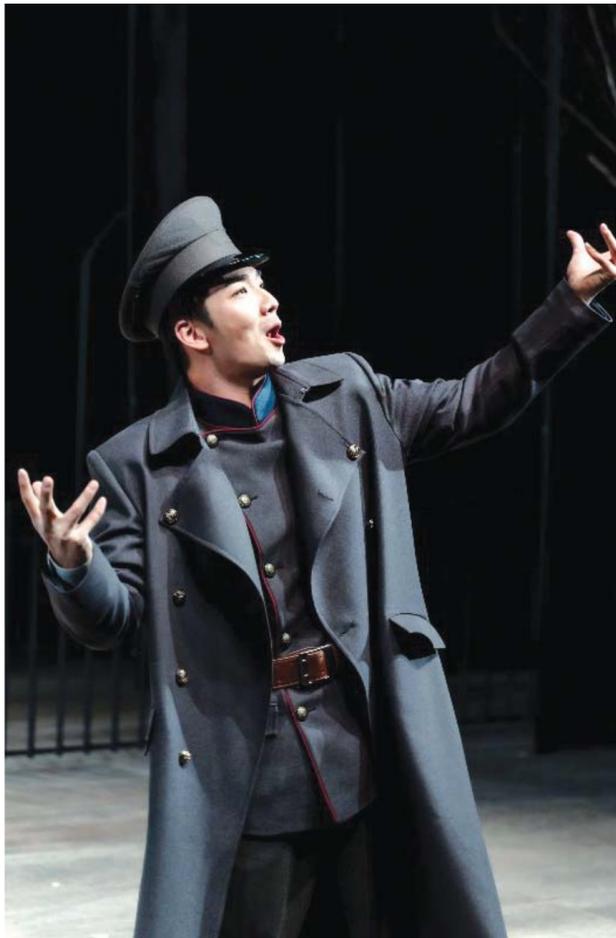
이 씨는 “제가 나중에 엄마 때문에 배우 못했다고 원망할까봐 결국 허락하셨다고 들었다”며 “배우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8년 간의 대학생활을 마친 그는 서울로 올라가 KBS2 ‘TV소설 복희 누나’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복희 누나’에 4회 정도 출연했어요. 제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 전라도 양아치 역할을 맡았죠.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주로 내려와 처음부터 연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연극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후 2014년 그에게 광주연극제 신인연기상을 안긴 연극 ‘바퀴자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정육상’, ‘빨’, ‘닥터 지바고’, ‘나의 살던 고향’, ‘리어왕’, ‘세자매’, ‘내 아들들을 위하여’, ‘인형의 집’ 등 수많은 무대에 올랐다. 2017년에는 한국연극협회 젊은연극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친구 따라 들어간 대학 동아리서 연극과 첫 인연 드라마 통해 데뷔...영화·뮤지컬·연극 등 다양한 무대 광주연극제 신인연기상...올해 국악 무대도 도전



극단 사람들 사이 단원으로 활동중인 이영환(36)씨. 연극 ‘세자매’에 출연한 모습.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당연히 ‘바퀴자국’이예요. 처음 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고 그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그린 작품이예요. 국 민학교 6학년 어린이를 연기했었는데 ‘오빠는 키가 그렇게 큰데 무슨 6학년이야’라는 상대 배우의 대사가 아직도 생각남

니다.” 그는 연극 뿐 아니라 독립영화 ‘침묵의 나선’, ‘삼포가는 길’, ‘광인-떠도는 땅’ 등에 출연했고, 뮤지컬 ‘빛골아리랑’, ‘서청포리브’ 등의 무대에도 올랐다. ‘바퀴자국’ 출연 이후 쉴 틈도 없이 오른 뮤지컬 ‘빛골아리랑’에서는 연극과는 다른 뮤지컬의 매력을 느꼈다. 또 노래와

춤, 퍼포먼스가 주가 되는 뮤지컬과는 달리 연극은 대사로 관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더욱 디테일한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저 스스로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남들과는 달라야 배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기 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안쪽으려고 발악하는 심정으로 무대에 서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한 장면을 위해서 목소리 톤, 눈빛 등을 달리 해가며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보통 1년에 4-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그는 공연이 없을 때는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이 초·중·고등학교마다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아르떼’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수업도 하고 있다.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학교를 찾아 연기를 선보이기도 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연극놀이 같은 흥미 위주의 수업을 주로 해요.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좀더 심화된 이론 수업이나 학교 축제에 올릴 연극을 함께 준비하기도 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좀더 나은 연기,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항상 고민합니다.”

행복한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이 씨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하면 그런 좋은 기운이 관객들한테도 전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 하는데 행복이 없다면 배우를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지금쯤 스포츠기사를 하고 있을수도 있죠. 연기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2015년 광주시립극단의 ‘닥터 지바고’ 작품에 출연할 때는 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 연기는 내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지만 주변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로 고비를 잘 넘겼어요.”

올해 이 씨는 판소리 등 국악 관련 무대에도 설 생각이다. 또 극단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축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주 시민들이 연극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극배우들이 좋은 작품을 선보이게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광주를 넘어 다른 지역분들도 광주연극을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더스틴 호프만 주연 영화 ‘졸업’ 재개봉

53년만에...광주극장 13일부터

영화 ‘졸업’이 제작된 지 53년만에 다시 상영된다. 영화는 오는 13일부터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벤자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진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받은 자신의 집으로 로빈슨 부인의 치명적인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 이후 남들의 이목을 피해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벤자민’이 딸 ‘엘레인’을 소개받으면서 위기에 처한다.

더스틴 호프만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이후 1969년에 출연한 ‘미드나잇 카우보이’로 두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영 러버’ (1969), ‘작은거인’ (1870), ‘스트로우 더그’ (1971), ‘빠빠운’ (1973) 등의 영화를 통해 주연급스타로 자리잡았다.

또한 영화에 흐르는 ‘사이먼 앤 가펩클’의 ‘The Sound of Silence’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1968년 빌보드 1위를 차지한 ‘Mrs. Robinson’과 주제곡인 ‘Scarborough Fair’, 삽입곡인 ‘April Come She Will’ 등의 OST도 사랑을 받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53년만에 재개봉하는 영화 ‘졸업’

인문멘토링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19일까지 호남권 멘티기관 80여곳 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나눔과 공감의 가치로 세대 간 소통을 실현하는 ‘2020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멘티기관(80)을 모집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정도 멘토가 파견돼 인문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 인생나눔교실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정신문화사업으로 인문적 소양을 갖춘 멘토가 아동,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멘티를 찾아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는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모집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며 공모를 통해 80여 개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유형인 기관(지역아동센터, 중학교, 군부대, 보호관찰소 등) 외에

인문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세대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마을공동체, 기업, 단체, 동아리 등의 유형도 신청할 수 있다. 멘티기관으로 선정되면 멘토가 파견돼 인문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생나눔교실 사업’은 은퇴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세대 간 상호 배움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인문멘토링(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과 장·노년의 자기주도적 생활인문 활동(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日수뇌 암살조직 한인애국단 편지·봉투 문화재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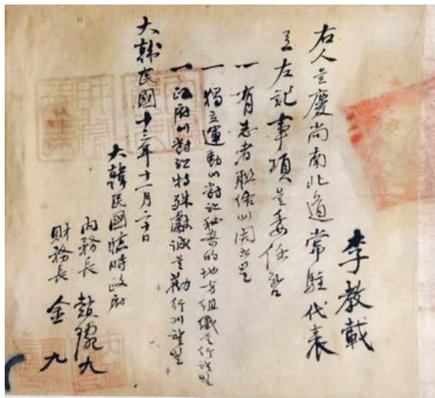
김구가 일본 수뇌를 암살하고자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 단원들의 편지와 봉투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6일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등 항일유산 5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등록된 문화재는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대한민국임시정부 문명박추조 및 문원만 특발’,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별, 추조, 편지 및 소봉투’ 등 총 5건이다.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국가등록문화재 제773-1호)는 1930년대 초 독립운동이 침체하자 김구가 일본 수뇌를 암살하고자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

단원들의 편지와 봉투다.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최홍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이덕등 총 7점으로, 상해에 있는 김구와의 연락체계, 거사 준비 상황 등 한인애국단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한인애국단이 독립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해 역사적 가치가 크고, 활동이 비밀스럽게 전개돼 매우 드물고 귀중한 자료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사진) 및 상해격발은 독립운동가 이교재가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해 국내에 들어온 문서다. 1930년 전후 임시정부가 국내와 꾸준한 연락하면서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려 한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5개 미술관 ‘전시해설 지원사업’ 선정

광주 은암미술관, 다산미술관 등 광주·전남 지역 15개 미술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이승정·이하 한문연)가 공모한 미술관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로 2년째 진행되는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은 미술 관련 일자리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일반관람객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술전시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0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모두 75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 선정 미술관은 광주 의곡·영·소·암·주안미술관과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이며 전남에서는 GS칼텍스 예술마루, 강진아트홀, 한국민화뮤지엄, 소아르, 아천, 여수, 우종미술관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월 중 공개채용을 통해 개별로 전시해설사를 고용하게 된다. 미술 관련 전공 졸업생,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술작가, 전시해설 경력자 등이 채용 대상이다. 선정 기관은 채용한 전시해설사와 함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